발간자료

• **반도체(Overweight):** 엔비디아 실적발표 통해 향후 에이전트, Physical AI 시대 개화 과정에서 추론 연산의 중요도와 이에 따른 하드웨어 수혜 방향성(CPU & 메모리)이 더 명확해짐. 챗봇 이외 아직 AI 영향 받지 못한 산업 전반(100조 달러 규모) 개화 예정. Physical AI 개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향후 2~3년간 하드웨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. 단기적으로 업황 외적인 탑다운 요인이 주가 결정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. 6월 전반부까지 반도체 이벤트 공백 구간에서 물가 지표 확인 등 변동성 유발 요인 존재 → 좋은 업황으로 하방 지지는 분명할 것. 본격 모멘텀 재개는 6월 후반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트리거

(반도체/소부장 고영민)

• **삼성전기_BUY/150만원:** 글로벌 반도체 업체향 약 1조 5,570억원 규모의 실리콘캐패시터 공급계약 체결. 적용처는 AI 서버로, 27년 약 5,000억원, 28년 약 1.1조원 규모로 매출 인식 전망. 해당 레퍼런스를 기점으로 향후 추가 공급 모멘텀도 기대 가능. 실리콘캐패시터의 이익률은 약 20%대 수준으로 추정. 캐패시터를 직접 설계하되 생산은 외부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팹리스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→ 추가 자체 CAPA 투자 부담 없이 마진 확보 가능. 27년 매출액 15.9조원, 영업이익 3.0조원 전망(직전 대비 +21% 상향). 실리콘캐패시터 공급계약에 따른 증익 영향은 약 1,100억원 수준 반영. 적정주가 150만원으로 상향

(전기전자 김연미)

• **한올바이오파마_BUY/7.0만원:** IMVT-1402, D2T RA Period 1에서 ACR20 72.7% 확인. 알부민·LDL 변화 관찰 없음, 새로운 안전성 이슈 없음. FcRn 플랫폼 신뢰도 전반 상향 및 TP 70,000원 상향. 향후 모멘텀은 2H26E RA Period 2 및 CLE PoC 탑라인을 시작으로, 2027E GD/MG 등록임상 탑라인으로 이어지는 구조. FcRn 억제제의 상업적 가치는 argenx가 이미 입증. MG+CIDP(TAM ~5만명)만으로 시총 430억 유로 형성한 반면, IMVT의 GD(~33만명)+D2T RA(~8.5만명)는 TAM이 약 8배 크고 두 적응증 모두 First-in-class

(의료기기/화장품 박종현)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·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.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본 자료는 '나눔스퀘어'와 '아리따 글꼴'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

투자등급 비율

BUY : 91.7%	HOLD : 8.3%	SELL : 0.0%

투자등급 관련사항

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

- BUY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 이상
- HOLD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5% 이상~ +15% 미만.
- SELL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5% 미만.

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

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,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

- Ov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- Neutral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- Und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

주)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